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혼술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혼술

한눈에 보는 기록

뜻

홈질로 꿰맨 옷의 술기.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혼술	혼술	혼술	혼술
혼술	혼술	혼술	혼술

혼술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홈질로 꿰맨 옷의 술기.

①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 수록 용례

6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혼술'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흙길로 꿰맨 옷의 솔기.

☞ 혼술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혼술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혼술 사전 표기 요약	—	—	—	—	●→	●→
혼술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혼술
19세기20세기현재
- 혼술
19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혼술, 혼술



혼술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변화

‘혼술’은 19세기에서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19세기에 ‘혼술’도 나타나는데 이는 ‘술’과 ‘술’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아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문헌 속의 혼술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혼술, 혼술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혼술, 혼술



출처 1880 한불사전 111

용례 01

66 문헌 용례

혼술 [縫].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0년경 성경직해 4:66ㄴ

용례 02

66 문헌 용례

큰 옷 혼 벌은 혼술 업시 통으로 짠 거신즉.

현대어 풀이

큰 옷 한 벌은 혼술 없이 통으로 짠 것인즉.

출처 1896 국한회어 곤:371

용례 03

66 문헌 용례

혼술 縫隙.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162

용례 04

66 문헌 용례

혼술 縫.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혼술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혼술

출처 1939 동아일보 5월 4일 3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때가 절고 혼술이 모다 달아 떠러진 학생복이지만 손질을 해 입고 밥을 재촉하였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8 조선일보 6월 23일 4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혼술이 타진 것이 아니라 그 질긴 「포오라」 생감이 마구 찢겨져 있는 것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혼술에 관한 주석

‘혼술’은 한 겹으로 된 또는 하나의, 혼자인을 뜻하는 접두사 ‘홀-’에 가장자리를 뜻하는 ‘시울’이 결합한 ‘홀시울’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혼술’은 형견을 겹쳐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란 뜻의 동사 ‘호-’와 관형사형 어미 ‘-ㄴ’, 옷이나 이부

자리 따위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맨 줄.의 뜻인 명사 ‘술’이 결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혼술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안옥규 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출판사
- 염광호 2021 우리말 어원 산책 역락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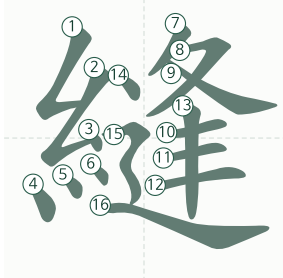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혼술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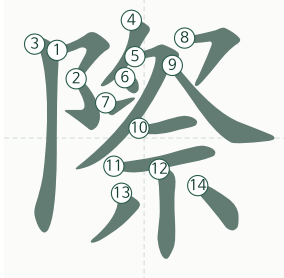
縫 뜻·음 꿰맬 봉
총 17획 · 부수 糸

사전 17획 · 획순 그림 16획

hanja.wordrow.kr/한자/縫/

際 뜻·음 즈음·가[邊] 제
총 14획 · 부수 阝

hanja.wordrow.kr/한자/際/